

길과 진리와 생명이신 주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길에 대해 함께 공부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4 : 5 도마가 가로되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삽나이까

요한복음 14 :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 :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하셨는데, 이것이 왜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말입니까?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예수님은 길과 진리와 생명이 무엇인지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의미를 넘어, 예수님 자신이 길과 진리요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이 세상에 존재했던 어떤 성현도 자신을 이렇게 소개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 그리스의 성인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소개하기를 하기를 “나는 진리의 산파다” 라고 하였습니다. 자신은 진리를 낳도록 도와 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자신이 진리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에 있었던 모든 성현은 자신이 깨달은 진리를 가르치고 소개하는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성인도 자신이 길과 진리 생명 그 자체라고 말한 사람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신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였습니다.

1.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길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구원의 길,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은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은 바로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은 즉각적인 반발에 직면합니다.

어떻게 인간인 예수가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어떻게 기독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이라 할 수 있느냐?

이런 반발을 하는 사람은 제 말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반발하는 사람의 근본적인 잘못은 창조주 하나님과 신을 혼돈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신은 창조주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신은 범신론적 신을 말하고 있습니다. 만유 안에 내재하는 신을 말합니다. 반발을 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말하는 신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는가 자문해봐야 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한 분이뿐이 없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신은 유일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 창조주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이 미칠 수 없는 곳에 멀리 멀리 계신 초월된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 멀리 멀리 초월자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인간을 연결하는 다리요 길로 예수님 당신이 존재한다는 의미입니다. 곧 “예수님은 중보자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보자에 대해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길은 중보자라는말이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연결하는 중보자는 양측의 성질을 공통적으로 소유한 존재여야 합니다. 어느 한쪽의 속성만을 소유한 자는 중보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의 결혼 풍습에 중매제도가 있습니다. 중매제도에는 중매자가 있습니다. 중매자가 성공하려면 양측을 잘 알고, 양측에 적합한 사람을 소개해야 중매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하나님은 연결하는 중매자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중보자로 오신 분은 하나님의 사정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창조주 하나님과 같은 분이여야 하고, 사람의 사정을 가장 잘 알기 위해서는 중보자는 인간이여야 합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이 중보자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중보자의 개념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또 예수님은 인간이십니다.

신인이신 중보자이신 예수님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장 잘 인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처럼 그런 중보자도 하나 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이 됩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말의 의미가 됩니다.

3. 이 중보자의 개념은 기독교만 갖는 독특성입니다.

범신론적 구원관에는 중보자가 필요없습니다. 불교에도 이슬람교에도, 중보자는 없습니다.

범신론적 구원관에서는 인간 안에 있는 신적 능력을 계발하여 인간 스스로의 능력으로 구원의 경지에 이르려는 것이기 때문에 중보자가 필요 없습니다. 이런 자력 구원 종교는 다 마찬가지로 중보자가 필요없습니다.

타력 구원의 종교는 기독교 하나 뿐이 없기 때문에, 중보자는 기독교 하나에만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수 없느니라 하십니다.

요한복음 14 :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런데 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는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며, 화해의 제스처어로 이슬람 국가를 방문하려다 거부당한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년센스 중에서도 상년센스입니다. 카톨릭이 이런 어처구니없는 실수를 하는 것은 그들이 구원론에서 세미펠라기우스 주의를 받아 들였기 때문입니다. 펠라기우스는 어거스틴의 논적이었던 5세기 때의 이단입니다. 세미 펠라기우스 주의는 간단히 말하면, “은혜로 구원은 받지만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행위도 필요하다는 것은 선행이 구원에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의 선행을 근거를 해서 세상의 여러 종교의 선행을 구원을 위한 충분 조건으로 받아 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빠진 선행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카톨릭은 몸통은 잘라 버리고 다리만 껴안고 살겠다는 것입니다.

중보자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가는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나는 길이라는 의미입니다.

요한복음 14 : 6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4. 다음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길은 구원의 길을 의미합니다.

유사이래(有史以來) 사람들은 두 가지 방면에서 구원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과, 둘째는 남이 성취한 공로를 의지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겠다는 것을 타력 구원이라 하고, 남이 성취한 공로를 의지해 구원을 얻는 것이 타력 구원입니다.

자력구원은 선행을 통해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은 자기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구원에 도달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성이 있는 것 같이 보이고,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이것을 선호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지 않은, 다시 말하면 기독교 이외의 모든 종교적, 모든 철학적 노력은 모두 이 안에 있습니다.

타력 구원은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타인이 성취한 공로를 의지해 구원을 얻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의 은혜를 통하여 구원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타력 구원에 들어 갑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적 철학적 노력은 모두 이 두 범주 안에 들어 갑니다.

자기 스스로의 노력으로 구원에 도달하겠다는 종교의 대표가 불교입니다. 남이 성취한 공로에 의해 구원을 얻겠다는 종교의 대표가 기독교입니다.

4.1 먼저 자기의 노력, 즉 자신의 선행을 통하여 구원을 얻겠다고 하는 불교에 대해 공부를 해보십시오.

불교에서는 인간의 내적 원리로 眞我(Atman)를, 우주의 궁극적 원인으로 범신(Brahman ; 梵神)을 설정하여 범아일여(梵我一如)라고 합니다. 또 인간의 행위는 전생의 업(業; karma)에 의해 지배된다고 하며, 이생에서의 현재의 행위는 내세의 고락을 결정한다는 윤회(輪回)사상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윤회에서 해탈(moksa)하는 것을 부처가 되는 것입니다.

이 용어들을 해설해 드리면,

진아(眞我)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자기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인간 안에 있는 선한 마음으로 신적 성품이며, 불심이라고도 합니다.

다음에 범신(梵神)은 자연(自然) 속에 내재하는 신입니다. 범신론에 의하면 자연 만물 안에는 신성이 깃들어 있으며, 사람도 신(神)인데 사람 신(神)을 형상화한 것이 부처입니다. 이런 것을 범신론이라고 합니다. 범신론에 의하면 하늘에는 하늘 신, 바다에는 용왕이 신으로, 산에는 산신령, 나무에는 목신, 서낭당신,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잡신(雜神)들이 신적 성품을 가지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범아일여(梵我一如)라는 말은 우리 안에 있는 참된 자아와 범신은 한가지로 통한다는 뜻입니다.

인간의 행위는 전생의 업에 지배된다고 하는 말은, 전생의 죄가 현재에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불교신자들은 무슨 일이 꼬이고 안될 때 “전생에 무슨 죄가 있길래--” 하는 말을 합니다. 불교에서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자기의 죄의 업장을 다 갚지 못하면, 여러 가지 다른 동물로 태어나는 윤회(輪回)를 거듭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죄의 업장이 완전히 해소될 때까지, 염소로 다시 태어나고, 개로 다시 태어나고, 개미 등으로 끝없이 다시 태어나는 윤회를 거듭한다고 합니다. 불교에서 살생을 금하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내세에서 소나 염소로 태어나기 싫으면 이 세상에서 죄의 업을 다 청산하여야 합니다.

이상의 말을 가장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참된 자기인 진아(眞我)로 육신의 모든 욕심을 제어하여 선을 행하고, 부처의 지혜를 얻으면, 모든 고통에서 해탈을 하여 신의 경지인 부처가 된다고 합니다. 사람 안에 있는 신적 성품인 선심이 불심으로 통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선행과 지혜로 해탈하여 부처가 되는 것이 구원을 받은 상태입니다. 자기의 노력에 의해 구원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할 것은, 불교에서 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 자연 만물에 내재하는 신들 중에 하나인 범신의 상태, 즉 잡신의 상태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이 신적 경지에 들어 가는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는 관계가 없는 성경에서도 인정하는 잡신(雜神 ; gods)들의 계열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범신론적 구원에서 구원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이 아닌 기독교에서도 인정하는 잡신의 반열로 타락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에서도 천국을 말하고 불교에서도 구원을 말하니 어느 하나를 골라 믿으면 된다고 하는 사람은 오늘부터 생각을 바꾸십시오.

성경은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잡신들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는 누가 불교에서도 천당과 지옥을 말하고, 기독교도 천당과 지옥을 말하니, 기독교나 불교나 다 마찬가지다. 아무 것이나 하나 믿으면 된다고 말할 사람이 있습니까?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잡신 중에 하나로 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4.2 다음에 철학적 구원에 대해 공부를 해 보십시오.

철학에는 물론 부활도 천국도 내세도 없습니다. 현세가 전부이며 죽음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적 주장은 내세가 있기 때문에, 인간 안에 있는 악한 요소를 억제해야 한다고 말하지만, 철학적 주장은 이와 다릅니다. 철학은 인간 안에 있는 악을 억제할 이유도 필요도 없고, 오히려 그 것을 인정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이 참된 삶이라고 말합니다. 자신으로 존재하는 법을 배우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어도 자신으로 존재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인간 안에는 선과 악이 함께 존재하고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있을 땐 괜찮지만 선과 악이 갈등을 일으키고 싸우고 있을 때는 무엇이 참된 자기입니까? 둘이 갈등을 일으키고 있을 때 어떻게 자기로 존재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철학자들은 인간은 극복되어야 할 존재, 해방되어야 할 존재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니이체는 자기에서 해방된 존재, 자기를 극복한 존재로서 초인을 설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초인은, 자기의 행위에 대하여 이 세상의 윤리를 가지고 선악을 평가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궁극적으로 선인지 악인지는, 오직 자신에게 달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초인은 이 세상의 윤리적 기준을 초월하여 있습니다. 그 예로 나폴레옹은 수많은 사람을 죽였지만, 그는 살인자가 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영웅이 되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행동에 대하여 그것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질문을 하질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끝없이 추구하였고 그것을 성취한 초인입니다.

저는 이런 철학적 주장의 한계를, 도스토예프스키의 죄와 벌에 나오는 주인공 라스콜라니코프의 예로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스콜라니코프는 가난한 어머니가 보내 주는 돈으로 생계와 학업을 이어가는 가난한 법학도입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가난한 어머니로부터 오랫동안 돈을 공급받지 못해 학교를 쉬고 방안에서 오랫동안 틀어박혀 있으면서 심한 우울증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웃에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가 먹고 산다는 것 외에는 존재 가치나 이유가 없는, 라스콜라니코프의 표현을 빌리면 이(虫)보다도 가치없는 부유한 전당포 노파가 살고 있습니다. 라스콜라니코프는 이 노파의 돈이 자기 같은 유능한 젊은이에게 있다면, 그 돈으로 학업을 계속하고, 변호사 자격증을 얻어 인류를 위해 큰 봉사를 하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돈은 아무런 존재 가치도 없는 노인에게 있어서 그 유용성이 상실한 채로 있습니다. 라스콜라니코프는 그 노파를 죽이고 돈을 강탈하기로 하였습니다. 라스콜라니코프는 만약 나폴레옹이 지금 여기에 있다면 그는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영웅과 범인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 그것은 자기가 옳다하는 것을 위해 행동으로 과감히 옮긴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이것이 선이냐 악이냐 하는 질문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스콜라니코프는 물건을 맡기러 온 체 하다가 그 노파를 살해하고, 금품을 빼앗아 나옵니다. 나오다가 운이 없는지 그 노파의 여동생과 마주칩니다. 라스콜라니코프는 그 여동생조차 살해합니다. 라스콜라니코프는 범행을 저질렀지만 빼앗은 금품은 팔아서 쓰지도 못하고 어느 곳에 감춥니다.

살인을 한 후 라스콜라니코프에게 찾아 온 것은, 위대한 일을 성취한 나폴레옹의 기쁨이 아니라 범죄자로서 느끼는 불안과 공포입니다. 양심의 가책에 휩싸입니다. 이런 감정은 전에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입니다. 라스콜라니코프는 이 괴로움을, 가족을 부양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창녀가 된 소냐라는 여자에게 고백합니다. 소냐는 라스콜라니코프에게 자수를 권합니다. 라스콜라니코프는 땅에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고 땅에 키스를 한 후 자수하고, 시베리아 유형을 떠납니다. 이것이 죄와 벌의 대강의 줄거리입니다.

도스토예프스키는 죄와 벌에서, 범죄 후에 처벌로서 찾아오는 범죄자의 고통과 양심의 가책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하여도, 아무리 합리화를 하려 한다 할지라도, 마음의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양심의 정죄를 피할 수 없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뒤쫓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초조와 두려움에 떨니다. 그는 초인이 되고 싶었고, 초인이 되어 구원받은 삶을 살고 싶었지만 마음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구원의 길이 아닌 시베리아 유형이 그의 길이 된 것입니다.

사람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인간의 마음속에는, 행동의 파숫군으로서 하나님이 심어 주신 양심이 있습니다. 사람은 양심에 의해 악을 행한 것을 알 뿐 만 아니라, 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갖습니다. 철학의 경우에서와 같이, 자신의 행위의 선악에 대한 결정을 인간 그 자신이 한다는 것은 틀린 것입니다. 인간의 모든 행동에 대한 심판자로서 양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학자들처럼 우주 안에 사람만 있는 줄 알고 살아서는 안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을 거울처럼 들여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모든 행동을 그의 뜻을 분별하여 행해야 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처럼 들어 나는 줄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철학적인 초인의 길은 구원의 길이 아닙니다.

또 우리는 범신의 계열로 타락하는 범신론적 구원관이 구원인 줄 알아서도 안됩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께만 있습니다.

기독교의 구원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입니다. 범신론에서 말하는 잡신 중의 하나로 타락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5. 다음은 중보의 수단인 말씀에 대해 공부하십시오.

기독교의 신론은 초월신론입니다. 이것을 바울 사도는 엡 4:6 에서

에베소서 4 : 6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우리 하나님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십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 안에 계신 것은 하나님의 초월성의 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저와 여러분은 예배실 안에 있던지 밖에 있던지 해야지, 예배실 안과 밖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만유 안에 있던지 만유 밖에 있던지 해야지, 만유 안에 또 만유 밖에 동시에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초월적이시기 때문에 만유 위에 초월하여 계실 수 있고, 만유 안에 내재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렇게 초월적입니다. 만유 안에만 있는 범신론과 비교할 때 천지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상상이 만들어낸 신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분입니다.

이런 초월적인 하나님은 인간의 상상을 초월하여 계시기 때문에, 그 차이가 너무 커서, 하나님 당신이 스스로 나타내 주시지 않으면, 사람의 지혜나 머리로는 이해할 수도 알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인간에게 나타내 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합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차이는 너무 커서 계시라고 하는 중보적 수단을 빌리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있는 중보적 수단인 계시가 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계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보적 수단인 계시가 이 되신 것이 바로 길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과 교통을 할 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은 중보적 수단인 계시가 되신 분이시기 때문에, 계시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4 :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기 때문에, 중보적 수단인 계시인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요한복음 14:6 에서 내가 길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수많은 선생이 있고,

수많은 사람이 구원의 길을 설파했습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하나 뿐이 없고,

중보자도 하나 뿐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12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

구원을 얻을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한 말씀대로

우리 구주 예수님 한 분만이 구원의 길이요

하나님께 가는 길이라는 것을 확실히 믿고,

매일 매일 이 확신이 깊어지는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글이나 인터넷 방송을 들으시고, 다른 사람에게도 소개해야 겠다고 생각이 드시는 분은 5 분만 시간을 내셔서 저의 twitter 나 café 에나, Blog 에 가셔서 소개의 글을 올려 주십시오. 여러분의 조그마한 노력으로 수많은 사람이 읽고 듣게 됩니다.

- Café 명 : 믿음의 향연

<http://cafe.naver.com/Christiansymposium.cafe> 이나

- Blog 명 : 행복의 샘터

<http://blog.daum.net/shk2812> 이나

- * twitter

1. <http://www.twtkr.com> 으로 가셔서 로그인 하세요.
2. 바울성서 아카데미(spba0708)에 접속하여 Follower 등록을 하세요
(twitter 안에서검색 box 에 spba0708 을 넣으신후 click 하면 접속됨).
3. 내 twitter 의 home 으로 가서 글을 쓰신 후 tweet 하세요.
4. 제가 twitter 에 올린 글(예, example)

성령님이 인격자라는 것은 우리의 인격을 말씀으로 지배한다는 뜻이고, 우리는

말씀에 완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더 알고 싶으면,
<http://www.stpaulbibleacademy.com/3FCFContents.html>

여섯째주를 공부하시길!

5. Retweet 를 하실 분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home 로 가셔서, 글을 쓰는 Box 에

RT @ 를 type 하신 후 , space 한 후, Retweet 할 내용을 paste 하시면 됨.